"거북이의 목적은 성공 아닌 행복"

박혁, '이솝에게 배우는 민주주의' 출간 도덕적 훈계에서 벗어난 거침없는 상상

토끼와 거북이는 흔히들 '교만 '에 대 한 교훈적 이야기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말하

이렇듯 이솝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살 아가는 세상에 대한 정치사상이었으나, 후대에 전파되면서 왜곡되고 변형돼왔

저자 박혁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솝의 이야기가 지난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번역된 반민주주의적 생각을 담았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이솝에 게 배우는 민주주의'를 출간했다.

갈등과 불화, 번화와 혼란으로 가득했 던 기원전 6세기경, 이솝은 그리스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 여자나 종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으며, 부자들의 음모와 싸움은 끊이질 않았다. 이솝은 해방된 후 짧은 우화로 그 시대를 풍자하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위해 시민들 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했다.

이솝의 이야기들은 느림, 책임, 균형,

정의, 조화, 소통, 저항, 사랑, 배려, 신 뢰, 약속, 용기 등의 언어로 채워져 있으 며, 이 언어들은 주로 '공존의 기술' 과 '다양성의 존중'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이야기들 안에는 아테네인들이 300년 넘게 자신들의 정치 체제로 받아 들이게 될 민주주의의 싹들이 머리를 내 밀고 있었고, 아테네인들은 마침내 그 싹 을 강한 민주주의로 키워냈다. 폴리스의 민회나 재판정에서 이솝 우화는 끊임없 이 울려 퍼졌고, 가장 성공을 이룬 정치

아테네인들이가장우선적으로요구했 던 민주주의의 원리는 '법 앞의 평등' 과 '말할 자유' 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누구 나 말할 권리가 생겼고, 그 결과 모든 일 이 느리게 진행됐다. 이것을 비난하는 '토끼' 같은 사람이 많았지만 이솝은 결 국 느린 거북이를 경주에서 이기게 한다. 이는 느리게 가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 정치에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옳다는 뜻을 지닌다.



토끼와 거북이 외에도 지배와 피지배 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개와 늑대', 차이 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참나무와 갈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을 다 른 '흰 양과 검은 양' 등 20편의 이솝 우 화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각 이솝 우화마다 생각하고 배 워야 할 내용에 대한 주제가 요약돼 있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정 리할 수 있다. 원문을 읽은 후에는 저자 의 '다시 생각하기' 코너를 통해 이솝 우 화의 이중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구성돼 있다.



"거북이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 이었기 때문에 토끼와의 경주가 결코 무 모한 짓이 아니었다"는 저자는 "지금까 지 이솝 우화의 정치적 의미는 제대로 드 러나지 않은 채, 도덕적 훈계에 갇혀 있었 다. 이솝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많은 사람 들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거침없이 상상 했으면 좋겠다"고 출간 이유를 전했다.

맹앤앵. 184쪽. 1만2,000원.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보람 기자

■새로 나온 책

인생의 중간에 머문 그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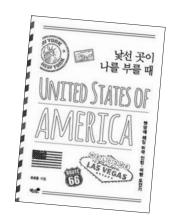
◇이제 나를 안아줘야 할 시간=겉은 어른으 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사는 것이 서툴고 어렵 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3040세대는 열심히 달려온 것에 비해 손에 쥔 것이 별로 없 다는 허탈감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막 막함에 방황한다. 저자 한성희는 이 책을 통해 삶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단단히 지켜낼 자신만의 무엇을 찾아내는 방법과 함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에 관해 자신이 몸소 겪으며 깨달은 깊은 통찰의 메시지를 전 한다. 위즈덤하우스. 272쪽. 1만5,000원.



5

맨땅에 헤딩 미국 인턴 · 여행 도전기

◇낯선 곳이 나를 부를 때=미국에서의 인턴 생활에 '맨땅에 헤딩' 하듯 도전한 청년의 생활 수기이자 여행기이다. 저자 유호동은 좌충우돌 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들, 소셜 넘버(사회보장 번호) 발급, 미국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차량 구입과 보험 가입, 현지 운전면허 취득 등 현지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서 술했다. 책의 후반부는 인턴 생활 중에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미국 서부에서부터 동부의 대도 시권에 이르기까지 북미대륙 전역을 여행한 기 록을 담았다. 책과나무. 356쪽. 1만5,000원.



지도 밖 지성의 숲으로 이끄는 강의

◇열두 발자국='알쓸신잡'과 '차이나는 클 라스'등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롭고 명쾌한 과학적 통찰을 대중에게 전하며 많은 주 목을 받았던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신작이 출 간됐다. 지난 10년간 펼쳐졌던 저자의 강연 가 운데 가장 열띤 호응을 받았던 12편의 강연을 선별하여 내용을 보충하고 새롭게 집필했다. 강 연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의 숲으로 이끄 는 발자국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 고 있는 청춘들과 이 땅의 리더들에게 뇌과학의 지혜와 통찰을 전달한다.

어크로스. 400쪽. 1만6,800원.



나를 위한 제대로 된 휴식

◇혼자 쉬고 싶다=진정한 휴식은 삶을 바꿀 수 있다. 사선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죽음조 차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힘, 이것의 원천이 돼 준 '깊은 휴식'을 알리고자 한다. 깊은 휴식의 원리, 일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 주는 이 책은 바쁜 일상과 복잡한 관계에 중독 되다시피 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자 필독서이다.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이런 자질 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 워지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숨을 쉴 수 있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

책세상. 376쪽. 1만5,000원. /이보람기자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정가 35억 → 최저가 35억

▶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추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3) 서구 덕흥동 (1,210평)

4) 광산구 지죽동 (98평)

올 여름엔 소설보다 에세이가 인기

캐릭터·SNS·탈진증후군 등 강세

서점가에서 여름은 '소설의 계절' 이라 불릴 만큼 소 설이 강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찾 는 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교보문고의 7월 판매량 집계 결과에 따 르면 에세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6% 늘어난 반 면, 소설은 작년보다 18.7% 줄었다.

여전히 전체 판매량에 있어서는 소설이 에세이보다 많지만, 작년 7월 소설 대 에세이 판매 비중이 70.6% 대 29.4%이던 것이 올해 7월에는 57.8% 대 42.2%로 그 차이가 눈에 띄게 줄었다.

베스트셀러 순위(지난주 기준)에서도 20위권 내 절 반(10종)을 에세이가 차지했다.

교보문고는 올해 에세이가 대세로 떠오른 이유를 세 가지 키워드 'SNS', '캐릭터', '탈진증후군(번아웃증 후군)'로 분석했다.

지난주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른 '죽고 싶 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독립출판물 로 시작해 SNS 채널로 인기를 얻어 대형

서점까지 진출한 책이다. 4위에 오른 하태완 작가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도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작가의 책이다.

'캐릭터' 는 캐릭터 에세이류의 인기를 일컫는다. 곰돌 이 푸 캐릭터를 중심으로 위로의 말들을 적어놓은 책 '곰 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시리즈가 몇 주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탈진증후군'에 빠진 이 들을 다독여주는 에세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언어의 온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무례한 사람



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등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들 에세이의 주 독자층은 20~30대 여성이다. 7월 에세이 분야의 성별 • 연령별 판매 비중은 20대 여성이 22.88%, 30대 여성이 22.40%로 가장 크다.

반면 소설은 대형 신작의 부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가 신작으로 는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8위에 올랐고, 작년 초 출간된 일본 추리물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SNS 채널에서 호응을 얻어 7위에 올랐을 뿐이다.

/연합뉴스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상가2칸★

2층 ~ 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룸3개)

★ 공원앞 전망 최고 ★

보 9천 . 월 600만(융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20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융2천)



-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융 2천만)
- ②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안집1개) 보7천만월700만
- ▶ 매가 12억8천만(융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법률경매

㈜대신경매

상가빌딩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 감정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감정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5백 → 최저가 <u>2억4천</u>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정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근린상가 / 빌라 / 숙박시설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 103평 건 288평) ▶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6평 건 427평) ▶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7억1천9백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정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6층) 117평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4천7백 → 최저가 4억4천

①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40평) ▶ 감정가 2억8천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완지구 수완리채 (32평)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25평) ▶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1억2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25평) ▶ 감정 3억5천 → 최저 3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적 1억1천

공장/기타 ①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90평

▶감정 68억 → 최저 47억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 506평 건526평 ▶감정 12억 → 최저 9억8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 237평 ▶ 감정가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 510평건176평 ▶ 감정가 3억 → 최저가1억6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